

3) 마리아 시누관의 재판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필리핀의 여신 마리아 시누관의 법정에서 일어난 동물들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르티네즈라는 이름의 새가 마리아 시누관을 찾아와, 지난밤에 카바요라는 이름의 말이 경충경충 뛰면서 동지를 짓밟는 바람에 알들이 깨졌다고 하소연하자, 마리아 시누관은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마리아 시누관은 카바요, 팔라카(개구리), 파공(거북이), 알리탐탐(개똥벌레), 라목(벌)을 차례로 법정에 부르고, 이들의 설명을 들으며 사건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파악하여 현명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는 마리아 시누관의 재판 과정과 재판의 결과가 흥미롭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하나의 행동이나 사건이 또 다른 행동이나 사건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특정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판의 사회적 역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 공정하고 현명한 재판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마리아 시누관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은 이와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법과 재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마리아 시누관은 누구인가요?
- 마르티네즈는 왜 마리아 시누관의 법정에 찾아왔나요?
- 라목은 왜 큰 칼을 들고 다녔나요?
- 마리아 시누관이 라목에게 “탈랑카가 너를 공격했다면, 너는 이 법정에 탈랑카를 고발해야 했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라목은 어떤 벌을 받았나요?
- 마리아 시누관은 마르티네즈에게 어떤 충고를 했나요?
- 마리아 시누관이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나요?



알아봅시다.

- 마리아 시누관(Maris Sinukuan)에 대해 알아보시다.

Tip!

마리아 시누관은 필리핀의 팜팡가(Pampanga) 지역에 있는 아라얏 산(Mount Arayat)의 요정(필리핀 말로 diwata) 혹은 여신으로, 로스 바노스(Los Banos) 지역의 마리아 마킬링(Maria Makiling), 세부(Cebu) 지역의 마리아 카카오(Maria Cacao)와 비슷합니다. 시누관이라는 이름 앞에 '마리아'가 붙은 것은 스페인의 영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Maria_Sinukuan)



체험해 봅시다.

- '네가 생각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이웃들이 피해를 입었어.'를 타갈로그어로 따라해 봅시다.

Tip!

'올리블리 그림동화'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건이 일어나는 사례를 찾아 발표해 봅시다.
-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인형으로 만들어 이야기 속 순서대로 세운 후 쓰러뜨리면서 도미노 효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그림 이야기 속에 나온 동물들을 그림 카드로 표현하고, 각 동물의 이름을 필리핀 언어를 표현한 이름 카드로 만들어 친구들과 서로 맞춰보는 놀이를 해 봅시다.



참고 자료

- 마리아 시누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웹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Maria_Sinukuan
- 필리핀의 명절과 기념일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goo.gl/wUqHO>